

기독교음악학 관점에서 본 청각적 사고의 의미와 전망1)

임 현 식

◆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음악학 관점에서 청각적 사고의 의미를 조 명하고, 이것이 기독교신앙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전망하 는데 있다. 시각은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청각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한다. 반대로 청각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면 시각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두 감각 간의 이러한 차이점은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만들어낸다. 시각적 사고는 정적인 안정감을 토대로 확실한 것,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반면 청각적 사고는 동적인 과정을 토대로 변화하는 것, 상대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2) 이에 따라 대상이나 사건은 그것에 접근하는 사고방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신앙에 대한 이해는 하나의 사고방식에 편중되어서는 안 되며 양자가 하나로 통합된 영역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청각적 인식, 청각적 사고, 시각적 인식, 시각적 사고

I. 서론

기독교는 들음(listening)의 종교라 할 만큼 본질적으로 청각적 사고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앞에 나타나 보

1) 본 논문은 논자의 박사학위 논문 ‘연주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음악의 규정에 관한 연구’(백석대학교대학원, 2012)에서 다루었던 시각과 청각의 지각적 차이점을 기독교음악학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논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다소 인용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 인식을 기초로 한 사고방식을 시각적 사고로, 청각적 인식을 기초로 한 사고방식을 청각적 사고로 명명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본문에서 다룰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롬10:17), 보고 믿는 것보다는 듣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말한다(요20:29). 따라서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해 분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는 시도들 또한 시각적이기보다는 청각적일 필요가 있음을 부각시킨다. 시각적 인식을 토대로 한 사고방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하여 불합리한 인식과 오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청각적 인식을 토대로 한 사고방식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 중 가장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시각이기 때문이다.³⁾ 시각적 판단에 기초한 사고는 외부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으로써 사람들에게 가장 주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오감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 그 결과 오늘날의 사회에서 안정감과 확실성을 추구하는 시각적 사고는 움직임과 변화를 추구하는 청각적 사고에 비해 더 우월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논문에서는 기독교음악학의 관점에서 청각적 사고를 조명하고, 이것이 기독교신앙과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전망하고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독교음악학의 관점이란 예술로서의 음악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음악활동과 그에 동반된 미학적, 신학적 사유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상을 탐구하는 것을 의미한다.⁴⁾ 따라서 본 논문은 청각적 사고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가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3) 뇌가 처리하는 정보의 85%가 시각에 관련된 것이고, 청각이 10%, 나머지 후각, 미각, 촉각을 합쳐서 5%정도이다. 서우석, 『음악을 본다』(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10), 머리말.

4) 임현식, “흔들림의 미학적 가치에 관한 고찰,” 『기독교 철학 17호』(파주: 한국학술정보출판사, 2013), 72.

II. 시각적 인식과 청각적 인식의 차별성

형태주의 심리학에서는 형태인식(Pattern recognition)을 토대로 작동하는 시각의 지각방식을 근접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잉태의 원리, 완성의 원리로 설명한다.⁵⁾

근접의 원리(Principle of Proximity)는 지각방식에 있어 가까이에 근접해 있는 것들끼리 모으고자 하는 원리로서 시간적, 공간적 거리 개념에 관한 인간의 심성을 체계화한 것이다. 유사성의 원리(Principle of Similarity)는 서로 모양이나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모으고자 하는 심성을 이론화한 것이다. 시각에 있어서는 같은 모양끼리 뿐만 아니라 같은 색도 함께 모여서 본다. 잉태의 원리는 원만한 연결의 원리(Principle of good continuation)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점이 모여서 선을 이룰 때 그 선은 이미 '점들의 합' 이상이 되어 방향성을 갖게 되고 선의 양 끝이 어떤 방향으로 뻗어나갈 것인지 알 수 있다는 원리이다. 선행사건은 이미 후행사건을 잉태하고 있다는 것이다. 완성의 원리(Principle of fill)는 공백(gap)을 충족(fill)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근거를 둔 원리이다.

이와 같은 형태주의 심리학의 원리들은 시각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기억하고, 사고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각적 판단에 기초한 이러한 원리들은 청각적 판단에 기초한 인식원리를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다.⁶⁾ 시각은 절대적으로 균등한 시간과 거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능하게 하지만 청각은 이것들에 대하여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청각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직선상에 표시된 한 음이

5) 형태주의 심리학은 베르트하이머(Max Wertheimer, 1880~1943)가 "인간은 고립된 자극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형태(gestalt), 즉 모여진 자극을 본다"고 주장하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태동되었으며, 쾰러(W. Köhler, 1887~1967)와 코프카(K. Koffka, 1886~1941)가 발전시켜 나갔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석원, 『음악심리학』, (서울: 심설당, 2000), 119-139를 참조하라.

6) 음악심리학에서는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근접의 원리나 유사성의 원리 등을 적용하여 음악적 지각방식을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이석원, 『음악심리학』, 121).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음의 지각을 물리적 현상으로만 설명하려는 심리음향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로 그 가치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청각적 사고에 관한 오해와 불합리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기에 재고가 필요하다.

그 이전에 나타난 두 개의 음과 맺는 관계는 눈에 보이는 직선상의 거리에 의해서 비유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⁷⁾ 시각적으로는 가장 근접해 있는 것들을 엮어서 보고자 하는 반면 현재 귀에 들리는 음은 바로 직전에 들린 음과 관련을 맺을 수도 있지만 그 보다 먼저 들린 음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들린 음은 아직 들리지 않은 더 멀리 있는 음과 관계를 맺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주의 심리학에서 말하는 근접성의 원리를 청각적 사고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유사성의 원리도 마찬가지이다. 시각은 같은 모양끼리 뿐만 아니라 같은 색도 함께 모아서 보지만 청각에서의 유사성은 시각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파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청각의 토대가 되는 소리는 어떠한 시각적 형태도 갖지 않는다. 청각은 대상의 형태를 지각한다기보다는 오직 진동하는 소리의 움직임과 그것에 내포되어 있는 청각적 관계에서의 동질성을 파악한다. 여기서 말하는 청각적 관계에서의 동질성이란 음악의 동기나 주제와 같은 음들의 조합을 지칭한다기보다는 그것들을 구성하는 각각의 소리에서 느낄 수 있는 동질의 공명이나 운동감을 가리킨다. 사람들은 울리는 같은 질의 소리에서, 또는 필연적인 긴장감으로 연결된 각각의 소리에서 청각적 유사성을 지각한다. 그러므로 형태나 색의 지각을 토대로 하는 시각에서의 유사성 원리로 청각이 파악하는 유사성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실상, 음악에서 음들이 변화한다는 것은 시각적 의미에서의 물리적인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음이 높낮이에 있어서 다르게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 사람들은 음계를 한 음이 높게 혹은 낮게 움직이는 것으로 지각하지만 이것은 시각적 판단에서 비롯된 오해다. 청각적으로는 각각의 자리에서 울리는 하나하나의 음을 듣고 있을 뿐이다. 음들은 언제나 청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음높이 수준에 묶여 있으며, 한 음 다음에 다른 음이 울릴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음높이를 가진 두 음을 들을 뿐이다.⁹⁾ 그러므로

7) 서우석, 『음악과 현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9), 153.

8) 버드(Malcolm Budd, 1941~)는 선율의 움직임은 그것을 구성하는 상이한 음높이를 가진 음들의 연속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음들 사이의 관계들은 음높이 연속체 상에서 그들이 갖는 자리들의 문제일 뿐 음높이 연속체 그 자체는 공간적 차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M. Budd, "Musical Movement and Aesthetic Metaphors," *The British Journal of Aesthetics* 43/3 (2003), 209-223. 재인용, 정혜윤, "음악적 공간과 움직임, 은유인가 아닌가?" 음악학 Vol.18, (한국음악학학회. 2010), 117.

9) 높낮이에 대한 판단은 시각적 인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음높이'라는 용어로 순수

시각적 판단에 기초한 인식원리와 청각적 판단에 기초한 그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만약 두 감각 간의 차별성이 무시된다면 보이지 않는 대상들은 시각적 판단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한편, 시각적 인식과 청각적 인식의 가장 두드러진 차별성은 안정지향성과 변화지향성으로 대변될 수 있다. 시각은 움직이는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대상의 움직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각적 지각은 불가능해진다. 시각의 인식능력은 대상을 정지시켜 놓고 관찰할 때 비로소 극대화된다. 그래서 시각적 지각을 필요로 하는 매체들은 정지 상태를 지향한다. 문자나 그림이나 악보 등과 같이 정지되어 있는 매체는 물론이고 움직임을 다루는 영상매체도 마찬가지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중요한 장면은 더욱 느리게 움직이거나 정지된 상태로 연출된다. 그 이유는 시각적 지각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이 바로 정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는 시각이 고정될 수 없고, 시각이 고정되지 못하면 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며, 대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면 시각은 올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시각은 그 본성상 정지, 즉 안정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하여 청각은 변화 지향적이다. 움직이는 변화 없이는 소리가 날 수 없으며, 소리가 없이는 청각이 작동할 수 없다. 또한 움직임이 느리면 느릴수록 더 약한 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청신경을 자극하는 '역치'(閾值)¹⁰⁾에 도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청각적 지각이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청각적 지각을 필요로 하는 매체들은 항상 움직임을 지향한다. 사람들이 말이나 음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할 때 그 배후의 움직임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청각적으로 가장 분명한 인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 이처럼 소리는 언제나 움직이는 과정속에서만 인식되기 때문에 청각은 그 본성상 움직임, 즉 변화 지향적일 수밖에 없다.

한 청각적 지각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이를 대신할만한 청각적 용어가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다양한 청각적 용어들이 보편화된다면 눈에 보이지 대상에 대한 이해가 사뭇 달라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0) 역치란 감각이 일어나는 데 꼭 필요한 최소의 자극의 세기를 가리킨다. 역치 이상의 세기를 가진 자극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감각이 생긴다. 봉혜진,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나타난 공감각의 사례 연구,” 석사학위논문(단국대학교 대학원, 2007), 16.

물론 시각도 대상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미 있는 해석을 부여하기 때문에 변화 지향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각이 대상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경이나 배경 중 하나는 정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¹¹⁾ 전경과 배경이 똑같이 움직일 때 시각은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인식할 수 있고, 전경과 배경이 서로 다르게 움직일 때는 혼란스러워질 따름이다. 이에 비하여 청각은 움직이는 배경 속에서 움직이는 전경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것들은 청각적 지각을 위한 배경도, 전경도 될 수 없다. 오케스트라와 독주자의 협연 무대는 좋은 예시가 된다.

그러므로 시각이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이해하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결코 시각적 공간에서의 변화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실재에 대한 보다 균형적인 이해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각 지향성과 그 어휘에서 벗어나 청각적 사건으로서의 지각경험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Ⅲ. 시각적 인식의 한계와 청각적 사고의 필요성

시각적 인식에 기반을 둔 사고방식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세계관에서부터 나타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들의 눈에 비친 세계가 거북이 등처럼 평평한 세계라는 이유로 거북이 배에 해당하는 반대편의 사람들은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고 믿었다.¹²⁾ 이처럼 서양의 사고방식에서 보는 것과 아는 것은

11) 시각적으로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배경(背景)이 되는 주변으로부터 전경(前景)이 되는 대상을 분리해 내는 것이다. 예컨대 독서를 할 때 글자들은 전경이 되고 흰 종이는 배경이 되는데, 시각은 전경이 되는 글자들을 조합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배경으로부터 전경의 위치가 바뀔 때 시각은 그것을 움직임으로 인식한다. 즉 시각적으로 움직임을 지각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다른 개별자(the individual)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꾸는 개별자를 지각하는 것이다 S. Davies, *Musical Meaning and Express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230. 영화를 볼 때처럼 초당 24장의 필름을 연속해서 보여주면 대뇌는 그것을 움직임으로 인식하는데 이것을 스트로보스코픽 운동(stroboscopic movement)이라고 한다.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151.

12) 시각적 판단을 인식의 토대로 삼았던 사고방식은 전통적으로 객관적,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오히려 과학의 발전은 이것을 붕

고대로부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형이상학적 철학과 합리주의적 과학은 모두 시각적 판단을 토대로 실재를 탐구하였다. 스미스(F. Joseph Smith)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하이데거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존재의 파악은 시각적 현상, 즉 빛 속에 나타나는 것(what appears in light)에 대한 연구였으며, 플라톤으로부터 후설에 이르기까지 사물의 형상(eidos)은 본질을 발견하기 위한 출발점”이었다.¹³⁾ 플라톤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시할 때 사용하는 용어들, 즉 불변하는 형상, 원형, 객관 등은 분명히 시각과 관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플라톤의 철학은 고정감과 안정감을 토대로 진리나 확실성과 같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시각이 “청각적 경험에서 찾을 수 없는 특성인 견고성, 명확성, 객관성을 추구”¹⁴⁾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또한 플라톤이 변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나 사물의 본질을 관념에서 찾고자 하는 것도 시각적 사고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므로 플라톤이 인간의 감각영역에 속해 있는 시각의 불완전성을 열등한 것으로 치부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철학은 시각적 은유와 추상에 기초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⁵⁾

이와 같이 서양의 사고방식은 그 근원에서부터 시각과 빛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청각적 사고의 의미나 가치는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시각적 사고

괴시켰다. 시각적 판단을 토대로 한 공간방향의 절대성, 공간위치의 절대성,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절대성 등이 붕괴되는 과정은 팡리지·추 야오판, 『뉴턴의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까지』, 이정호·하배연 역 (서울: 전파과학사, 1998), 19-29를 참조하라.

13) 스미스에 의하면 독일어의 학문이란 뜻의 단어는 비센샤프트(Wissenschaft)인데 여기서의 비센(Wissen)은 영어의 비전(vision)과 같은 어원을 가진 말로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그리스어의 에이데나이(eidenai)와 같은 어원을 가진 ‘안다는 것’을 뜻하며, 이것은 곧 보는 것이 아는 것이라는 의미로 귀결된다. F. J. Smith, *Understanding The Musical Experience*, (New York: Gordon & Breach, 1989), 9.

14) 웨인 D. 보먼, 『음악철학』, 서원주 역, (서울: 까치글방, 2011), 419 참조.

15) 시각적 은유나 시각적 추상은 거대한 자(신)의 시각을 차용하는 것으로 가능해진다. 이태호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신에 대한 믿음이 객관이라는 인간일반의 시각으로 대치되는 과정을 밝히며, 오늘날의 사람들이 객관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세계를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은 뿌리 깊은 절대성의 타파과정을 밝히기 위해 시도된 것이지만 시각 중심적 세계이해의 근원을 이해하는데도 유용하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태호, “A. N. Whitehead의 상대성 원리와 범주도식,”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01), 6-20을 참조하라.

는 지금도 여전히 서양철학과 과학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인식방식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청각적 사고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 음악에 대한 이해까지도 “시각적 지각방식과 주지주의의 전통 아래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시각예술로부터 거의 전적으로 그 구조와 용어를 차용”해오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¹⁶⁾

그러나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서양의 합리성은 원인과 결과를 추적함에 있어 논리적, 객관적,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맥루언(M. McLuhan, 1911-1980)은 “선형적이고 연속적인 논증이라는 합리성은 진정으로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일 뿐”이라고 비판한다.¹⁷⁾ 진정한 합리성은 비약 없는 논리를 필요로 하며, 논리의 비약이 없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하는데 시각은 항상 직선으로 뻗어나가면서도 직선상의 시선 속에 들어온 대상을 꿰뚫어볼 수 없다. 시각은 앞에 위치한 대상에 의해 가려진 뒤의 대상을 결코 파악하지 못한다.¹⁸⁾

16) 스미스에 따르면 음악학이 무지크-비센샤프트(Musik- Wissenschaft)라는 용어로 명명되는 것도 음악에 대한 이해가 시각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연구에서 음악의 형식과 내용은 시각적(visual) 은유와 시각(sight) 언어를 차용용하여 그릇과 담겨진 물질로 비유되었다. 예컨대 소나타 형식을 A-B-A로서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악보를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수직적 차이가 있게 표시함으로써 시각적 비유를 사용한다. 오선보의 모든 음높이는 수직적 거리로 표기되고, 우리의 의식 내에서 그렇게 지각하기를 강요한다. F. J. Smith, *The Experiencing of Musica Sound* 재인용. 서우석, 『음악현상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138, 225(원문 번역참조).

17) 맥루언에 의하면 시각의 지각방식은 ‘선형적 인과관계의 파악’으로 귀결된다. 즉 시각을 통해 얻어진 개별적 지식을 직선 위의 한 점으로 생각하고 각각의 연속되는 점들과의 인과관계를 개념화함으로써 대상과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선형적 인과관계란 종래에 있어왔던 합리적 사고방식의 인식론적 편향성을 의미한다. 이윤진, “한국 텔레비전 문화의 형성과정”, 박사학위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19.

18) 이 때문에 ‘중첩’이라는 말은 시각과 청각적 인식에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는 사뭇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수채화에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색을 중첩시키면 각각의 색이 사라지고 또 다른 색이 감각된다. 그리고 중첩을 계속하면 중국에는 검은색으로 귀결됨으로써 결국 다른 어떤

그렇기 때문에 시각은 대상의 표면을 순차적으로, 그리고 선형적으로 취사 선택하여 파악하고, 그것들의 인과관계를 개념화하는 방식으로 인식에 도달한다.

이에 비하여 청각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동시적으로, 단편적이라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대상의 움직임에 인식한다. 버로스(D. Burrows)에 의하면 “부과된 이미지에 대한 동시적 지각은 시각에서는 예외적 사건이지만 청각에서는 일반적인 규칙”¹⁹⁾이다. 예컨대 귀에 들려진 목소리는 성대의 움직임인 동시에 온 몸의 근육들과 공명강, 그리고 심리적인 움직임까지도 상호작용하고 있는 과정이며, 악기소리는 진동하는 악기와 그것을 진동시키는 연주자의 심리적, 신체적 움직임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청각은 언제나 대상의 현재적 움직임과 변화를 동시에 파악한다고 말할 수 있다.

청각과는 달리 대상의 단편을 순차적으로 파악하는 시각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기 위해 다른 것을 배제시킨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선택적 주목”(selective attention)²⁰⁾으로 설명한다. 선택적 주목이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한 순간에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연을 그려내는 회화에서의 원근법도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기 위해 다른 것을 배제시키는

색도 지각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미술에서의 중첩은 투명도에 따른 시각적 인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색의 혼합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에서는 소리를 중첩하여도 단일한 어떤 음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각각의 소리가 가진 특징이 사라지지 않고 서로에게 투영될 뿐이다. 그래서 미묘한 하모니의 표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다양한 악기들의 음색을 동시에 들을 수도 있다. 각각의 음들은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융합한다. 소리는 둘 이상이 거듭해서 겹쳐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섞이거나 조화되어 하나로 합쳐진 것과 같은 전체적인 인상을 제공할 수 있다.

19) David Burrows, *Sound, Speech, and Music*,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0, 18-19. 소리는 대상의 총체적인 움직임과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청각은 이미 울리고 있는 소리에서 움직임의 일부분이나 단편을 분리해 낼 수 없다.

20) ‘necker cube’로 알려진 도형은 선택적 주목을 잘 설명해준다. 이 도형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만 한 순간에는 한 가지로만 경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선택적 주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139-142를 참조하라.

선택적 주목에 의한 것이다. 이운진은 “원근법에 의해 삼차원적 공간을 표현하게 된 것은 미술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며 근대적 재현 예술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지만, 원근법은 현실과 실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같지 않다”²¹⁾고 주장한다. 원근법은 자연 자체를 그려낸다고보다는 현실적이라고 지각하는 하나의 보는 방식일 뿐이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배제시킨 상태에서 시각이 파악한 단편은 결코 대상의 본질이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물질의 구성원소인 소립자가 입자적 성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파동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현대물리학의 성과를 통해서도 지지된다.²²⁾ 현대물리학에서 양자론의 근거가 되는 불확정성은 전자가 공간에서 움직이는 과정 또는 어느 순간에 존재하는 위치를 알아낼 수는 있지만 두 가지 모두를 알아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자적 불확정성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간이 수많은 입자들과 파동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²³⁾ 이것은 곧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대상 모두는 불가시적 이면(裏面)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하다. 한 관점에서 파악되지 않던 것이 다른 관점에서 파악되는 가시적인 이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대물리학은 어떠한 시각적 관점으로든 포착되지 않는 불가시적 이면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불가시적 이면의 존재는 시각적 합리성의 한계를 인정하게 할뿐만 아니라 철학적 사고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의 움직임은 철학

21) 원근법은 사물들의 배열을 하나의 시점을 중심으로 배열시키고 왜곡시킴으로써 삼차원적 현실감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 내고, 그러한 시점에 의해 현실을 지각하도록 대중일반을 유도한다. 이운진, “한국 텔레비전 문화의 형성과정”, 20.

22) 이것을 입자-파동의 이중성(duality)이라고 한다. 하이젠베르크(W. Heisenberg, 1901-1976)는 원자핵이 물질이라고보다는 일정한 리듬으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불확정성 원리’를 주장하였다. 이종필, 『신의 입자를 찾아서』(서울: 마티, 2009), 92-94 참조

23) 입자들은 상호작용에 의거하여 결합, 분해, 생성, 소멸 등의 변화를 일으키고 항상 그 변화는 쌍으로 이루어진다. 입자의 운동은 다른 입자로 변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되는 무한한 변화의 연속이다. 그래서 그 실체를 찾을 수 없다. 물질의 실체는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기 때문에 입자나 파동 중의 어느 하나라고 단언할 수 없다. 어느 하나를 측정하려고 시도하면 반드시 다른 하나를 변화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더 정밀한 측정기구가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스티븐 호킹, 『시간의 역사』, 김동광 역, (서울: 까치글방, 2011), 68-81 참조.

에 의해 포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이 물리적, 정신적 측면 모두에서 언제나 변화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움직임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만 지각이 가능한 청각적 사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V. 기독교음악학 관점에서 본 청각적 사고의 의미와 전망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공동체 안에서 시각적 사고는 청각적 사고에 비하여 더욱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각의 안정 지향적 특징은 신앙공동체로 하여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사랑 등을 추구하게 한다. 이러한 경향은 움직임과 변화에 가치를 두는 청각적 사고를 불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거나 심하게는 신앙을 훼손하는 부정적인 것이라고 정죄하게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판단은 시각적 사고로부터 파생된 편향적 이해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청각적 사고가 움직임과 변화 지향적 특성을 갖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거나 신앙의 변질을 옹호하는 것은 단연코 아니다. 청각적 사고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의 가치는 인정되고 존중된다. 다만 그것을 실제화 하는 방식에 있어서 청각적 사고는 시각적 사고와 사뭇 다른 출발점을 갖는다. 예컨대 시각적으로 정지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전경과 배경 사이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도 불가시적 이면에서는 지속적인 움직임과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의 실제적인 의미는 단순히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 정지’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역동적 정지란 ‘역동의 과정을 통해 정지를 유지하는 것’이며, ‘정지 속에 역동의 과정이 내재해 있는 것’을 의미한다.²⁴⁾ 이것은 마치 정지해 있는 것으로 보이

24) 음악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음높이는 내재적인 역동적 정지의 과정, 즉 지속적인 흔들림을 통해서 유지된다. 흔들림은 음악적 아름다움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서 귀에 들리는 흔들림을 ‘소리’라 할 수 있고, 들리지 않는 흔들림을 ‘여운’이라 할 수 있으며, 전달된 흔들림을 ‘감동’이라 말할 수 있다. 흔들림의 특징을 갖지 않는 움직임은 소리로 인식될 수 있을지언정 음으로 지각되기 어렵고, 내재적 흔들림을 통해 유지되는 음이라도 시각적 방향으로 움직일 때 변화된 것으로 들린다. 도플러

는 발레리나의 푸앵트(pointe, 한쪽 발끝으로 서서 균형을 잡는 자세)가 실제로는 온 몸의 근육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화가 앞에 서 있는 모델이 화가에게 정지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몸의 근육들을 조절하고 있는 것과도 같다. 또한 고도로 훈련된 체조선수가 공중회전 묘기를 한 후 착지하는 순간에 균형을 잡기 위해 온 몸의 근육들을 사용하는 것과도 같다. 이때의 체조선수는 정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근육의 움직임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정지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 유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사랑을 실제화 하는 것은 각각에 내재해 있는 ‘역동적 정지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만약 하나님 안에 역동의 과정이나 변화가 내재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들 개개인의 상황에 반응하지 못하는 몰인격적이고 폭력적인, 혹은 관념적이거나 죽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성은 모든 대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하는 상대성을 토대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²⁵⁾ 변하지 않는 믿음이나 사랑을 실제화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지각은 역동적인 것, 즉 방향을 가진 긴장에 의해서 발생”²⁶⁾하기 때문에 무엇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내는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사랑의 표현은 결국 사랑에 내재된 역동적 정지의 과정이 외적 움직임과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란 단순히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무쌍한 역동적 정지의 과정을 토대로 시시각각 변하는 대상의 심리적, 물리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²⁷⁾

효과는 이것을 증명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이해는 논자의 박사학위논문 61-62를 참조하라). 시각은 전경과 배경의 관계 속에서 변화를 지각하지만 청각은 내재적 관계의 움직임을 토대로 변화를 인식하기 때문에 두 사고방식은 변한다는 것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상이함을 보인다.

25) 이것은 ‘상대적 절대성, 혹은 절대적 상대성’으로 명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기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26) 루돌프 아른하임, 『예술심리학』, 김재은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8, 80 참조.

27)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미세한 변화에도 반응할 뿐만

이처럼 청각적 사고는 ‘변하지 않기 위해서 변해야한다’는 역설적 이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적 이해는 시각적 사고로부터 파생된 기존의 선입견들을 재고하게 한다. 예컨대 시각적 사고에 있어서 정지해 있는 대상은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파악되기 때문에 힘을 가하여 밀거나 당김으로써 그 대상을 움직이려고 한다. 그러나 청각적 사고에 있어서 그 대상은 역동적 정지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상에 가해져 있는 힘을 놓아주거나 풀어줌으로써 그 대상을 움직이려고 한다. 이것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시각적으로 보았을 때 정지해 있는 한 사람을 움직이려면 우리는 그를 어떤 방향으로든지 밀거나 당겨야한다. 그러나 마치 줄다리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두 팔을 양쪽에서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그를 놓아주어야한다. 이때 그 사람의 움직임은 밀거나 당겼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²⁸⁾ 이 실험은 정지를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파악하는 시각적 사고와 역동적 과정으로 파악하는 청각적 사고가 전혀 다른 출발점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²⁹⁾

한편, 청각적 사고는 신앙공동체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분법적 사고의 뿌리에 존재하는 시각 편향적 사고는 빛에 비하여 어둠을, 영혼에 비하여 육체를, 이성에 비하여 감성을, 남성에 비하여 여성을, 그리고 서양에 비하여 동양을 열등

아니라 수용하기 어려운 강력한 변화도 거부하지 않는다. 관계가 깊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의 심리적, 물리적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와 비례한다.

28) 음악표현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아이디어가 된다. 밀거나 힘을 써서 표현되는 음악과 놔주거나 힘을 빼서 표현되는 음악은 전혀 다른 뉘앙스를 만들어낸다. 이 뿐만 아니라 위의 상황에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을 통해서 우리는 청각적 사고가 가장 근원적인 것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논의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을 것이다.

29) 시각적 사고에서의 음정(interval)은 정지해 있는 각각의 두 음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청각적 사고에서는 이미 어떤 관계의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음이 또 다른 관계의 역동성을 내포하고 있는 다른 음과 제3의 역동적 관계를 맺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음악의 이해뿐만 아니라 기독교신앙은 물론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

한 것으로 치부한다. 그러나 청각적 사고에 있어서 어둠의 세계는 빛과 반대의 세계가 아니라 빛이 빛 되게 하는 모태로서의 세계이다. 어둠 속에는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수많은 가치와 의미들이 잠재되어 있다. 우주과학자들이 어두워서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는 우주의 암흑물질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어둠에 내포되어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준다.³⁰⁾ 이와 마찬가지로 청각적 사고는 그동안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육체, 감정, 여성, 동양 등에서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한다.³¹⁾ 실상, 우리 삶 속에서 합리적인 것이라고 경험되는 것들은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상대적인 것이다. 따라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시각적 사고보다는 변화되는 상대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청각적 사고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데 더 유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맥루언은 순차적인 절차에 따라 얻어지는 하나의 전망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잡한 전체를 모든 감각을 통한 하나의 이미지로 포착해내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³²⁾ 이러한 맥루언의 주장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공동체가 시각 편향적 인식에서 벗어나 통감각적 사유방식으로 대상을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실체나 본질에 대한 파악은 어느 한 영역에서의 노력으로만 제한될 일이 아니라 빛과 어둠,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정, 그리고 시각과 청각이 하나로 통합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가 세계를 명사로 보고 동사로 듣는다”³³⁾는 버로스의 말은 시각과 청각의 지각적 특징을 단언해 주는 것이지만 실체를 파악하는데 양측 모두가 종합되어야 할 필요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추구하는 기독교 신앙공동체는 모든 감각들이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통감각적 접근을 통해 균형적인 사고방식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0) 우주과학자들은 암흑물질을 파악하기 위해 그것을 직접 바라보는 대신 중력, 즉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관찰한다. 찰스 세이프, 『현대 우주론을 만든 위대한 발견들』, 안인희 역 (과주: 도서출판소소, 2005), 120-121.

31) 이분법적 사고에 의해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것들의 가치를 복원하는 연구는 다방면에서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 히브리적 사유와 헬라적 사유에 관한 비교 연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헬라적 사유가 정적, 시각적, 서양적인데 비해 히브리적 사유는 동적, 청각적, 동양적이다.

32) 마셜 맥루언, 『구텐베르크 은하계』 임상원 역(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556.

33) David Burrows, *Sound Speech and Music*, 21.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각과 청각은 본유적으로 서로 다른 인식의 토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시각적 사고는 정적인 안정감을 토대로 확실한 것,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는 반면 청각적 사고는 동적인 과정을 토대로 변화하는 것, 상대적인 것에 가치를 둔다. 양자가 추구하는 가치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 상존하는 것들이기에 무엇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시각적 사고에 길들여져 있었던 사람들은 청각적 사고가 제시하는 가치나 의미들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거나 일종의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 신앙공동체 안에서 변하는 것, 상대적인 것을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거나 신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먼저 갖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시각적 사고에 의한 선입견일 뿐이다. 변화하는 것, 상대적인 것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삶의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현대물리학이 밝힌 바와 같이 어느 한 순간이라도 조금의 변화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실재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은 분명히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시각적으로는 정지해 있다고 판단되는 것 까지도 실제로는 ‘역동적 정지’의 과정이 내재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기 위해서 변해야한다는 역설을 인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청각적 사고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신앙을 이해함에 있어 오직 청각적 사고를 기초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그동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왔던 시각적 사고의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하나의 감각에 편향되어 대상을 인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이 동시에 참여하는 통감각적 사고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은 토대로 하는 음악이나 보이지 않는 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해는 수없이 다양한 관점과 유연한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에 관한 이해는 어느 한 영역에서의 노력으로만 제한될 일이 아니라 빛과 어둠, 영혼과 육체, 이성과 감정, 그리고 시각과 청각이 하나로 통합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이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Ackerman, Diane. 『열린 감각』. 임혜련 역. 서울: 인폴리오, 1995.
- Arnheim, Rudolf. 『예술 심리학』. 김재은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 _____. 『시각적 사고』. 김정오 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4.
- Bowman, D. Wayne. 『음악철학』. 서원주 역. 서울: 까치글방, 2011.
- Burrows, D. *Sound, Speech, and Music*.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90.
- Davies, S. *Musical Meaning and Express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Hawking, S. W. 『시간의 역사』. 김동광 역. 서울: 까치글방, 2011.
- McLuhan, Marshall. 『구텐베르크 은하계』. 임상원 역.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1.
- Merleau-Ponty, Maurice.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2.
- Rifkin, Jeremy. 『엔트로피Ⅱ』. 김용정 역. 안산: 안산미디어, 1996.
- Seife, Charles. 『현대 우주론을 만든 위대한 발견들』. 안인희 역. 파주: 도서출판소소, 2005.
- Sloboda, J. A.. 『음악의 심리』. 서우석 역. 서울: 심설당, 1993.
- Smith, F. J. *Understanding The Musical Experience*, (New York: Gordon & Breach. 1989.
- Viladesau, Richard. 『신학적 미학』. 손호연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1.
- Zuckerkandl, Victor. 『소리와 상징』. 서인정 역. 서울: 예하출판사, 1992.
- 문창옥. 『화이트헤드 과정철학의 이해』. 통나무, 1999.
- 박유미. 『음악심리학의 이해』. 서울: 음악춘추사, 2004.
- 서우석. 『음악 현상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 _____. 『음악과 현상』.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9.
- 오영환. 『A.N.Whitehead의 時間論』.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74.
- 이석원. 『음악심리학』. 서울: 심설당, 2000.

- 이수원 외 13. 『심리학: 인간의 이해』. 서울: 정민사, 2000.
- 이윤진. “한국 텔레비전 문화의 형성과정”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2.
- 이종필. 『신의 입자를 찾아서』. 서울: 마티, 2009.
- 이태호. “A. N. Whitehead의 상대성 원리와 범주도식” 박사학위논문. 대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2001.
- 임현식, “연주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음악의 규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대학원, 2012.
- _____. “흔들림의 미학적 가치에 관한 고찰,” 『기독교 철학 17호』. 광주: 한국학술정보출판사. 2013.
- 정혜윤. “음악적 공간과 움직임, 은유인가 아닌가?” 음악학 Vol.18, 한국음악학학회. 2010.
- 한국심리학회 편. 『현대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문사, 2000.
- 方勵之·추 야오관. 『뉴턴 법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론까지』. 이정호·하배연 역. 서울: 전파과학사, 1998.

<Abstract>

Study about Auditory Thinking on the point of view of Christian Musicology

Hyun-Sik L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n the point of view of Christian Musicology, is to illuminate the meaning of auditory thinking and to foresee how it effects to understanding of Christian faith. While human can visually identify some shape, hearing is not able. The difference between visual and hearing is issuing the different way of thinking. The way of visual thinking seeks the sure things based on stillness stability, whereas the way of acoustically thinking seeks the changing things based on dynamical progress. Some object or some event may be interpre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way of thinking. Therefore, understanding of Christian faith is not supposed to be weighted toward a narrow view of things. It needs a balance between visual and auditory thinking in one realm.

Keywords: auditory perception, auditory thinking, visual perception, visual thinking

투고자 및 투고자 약력

임현식: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졸업, 협성신학대학원 졸업, 백석대학원 기독교음악학 박사 졸업, 한국기독교음악학회 회장, 백석대학교대학원, 남부대학교 출강, N컬쳐디자인 대표.

이메일: iamhyunsik@hanmail.net